


2023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설명 자료

<'23.7.27.(목) / 인사처 인재정책과>

□ 추진 배경

- '23년 상반기 인사처는 전국 대학(총 13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직 설명회(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감) 진행
 - 대학생 약 600명에게 현직 공무원이 직접 채용정보, 직업으로서 공직의 가치와 보람 등 설명  수강생 만족도 4.53점 기록
- 하반기(9~12월)부터 활동 대상, 행사 규모 등을 확대해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로 확대 계획
 - 특히, 여건상 진로 체험과 교육이 어렵고, 정책적으로 취업 배려가 필요한 기관·대상을 중심으로 행사 추진

<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비교 >

	청년공감(AS-IS)	찾아가는 공직박람회(TO-BE)
체계	인사처(기획·집행)+교수(협조)	인사처(기획)·업체(집행)+지자체·학교(협조)
진행	기존 대학 강의 중 1회를 대체	인사처 주관의 독립된 행사로 운영
대상	당해 강의 수강생	학교 재학생+지역 청년
운영	인사처 공무원	전문 행사 요원, 공채 합격생, 특정직(소방·경찰) 공무원 등 추가

□ 추진 내용

- (대학교) 대강의실 등에서 ▲공직 특강을 진행하고, 강의실 인근에 ▲상담 및 전시공간(공무원 배치) 조성·운영
 - 특강 및 상담 시 참여 공무원 본인의 실제 경험·사례에 기반한 공직의 매력과 혜택 전달

- 공무원 시험의 예비 수험생에게 유용한 직렬 선택 기준, 과목별 공부법, 면접 준비 노하우 등 안내(최근 합격생 섭외)

<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운영안 >

구 분(가칭)		내 용	비 고
특강 (전문 MC 진행)	공무원 채용정보 툭아보기	공채시험 채용 전반 및 지역인재 추천제도* 등 소개	현행 <청년공감> 자료 발전
	직업으로서 공직의 모든 것	공직의 유·무형의 혜택(보수, 자기계발 등) 설명	
	공무원에게 듣는 공무원	우수 공무원(OB 포함)이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여 공직 가치·공무원 장점 전달	
	합격생에게 듣는 공무원 시험	수석·최연소 합격자 등 섭외, 수험 준비 노하우 및 공부법 소개	
	오락·예능 행사	참가자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오락성 프로그램 마련(경품 포함)	상세 내용 업체 기획
상담 및 전시	공무원과 1:1 상담	부스에 직종별·입직경로별로 공무원 배치, 학생들과 공직 전반에 관한 상담 진행	대학 고시반, 학생회 협조

- (고등학교) 흥미·체험형 프로그램(공무원 시험 QUIZ, 소방·경찰 업무 맛보기 등)을 통해 진로 체험과 탐색의 기회 제공
- 지역인재 9급 지망생이 많은 특성화 고교의 경우, 관련 채용정보 및 수험 준비 방법 등 교육(모교 출신 공무원·합격생 방문 등)

□ 협조 사항

-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신청서 제출 : ~8.7.(월)

※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관련 문의 사항은 hobby22@korea.kr로 접수



찾아가는 정책토론회, 대학생 만족도 ↑

- ‘청년공감’ 상반기 활동 마무리... 인사정책 관심보인 19명 홍보대사로 위촉

#1. 학과 수업에서 현직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고, 강연자가 전하는 공직의 보람과 가치를 들으며 진로에 대해 폭넓게 고민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 수강생 대학생 ㄱ 씨 >

#2. 다양한 직급의 현직자가 경험을 토대로 설명해줘서 이해가 쉬웠고, 파견·유학 등 공무원의 자기 계발 기회가 많아 흥미로웠습니다. < 수강생 대학생 ㄴ 씨 >

공무원 인사정책 담당자가 대학에 일일강사로 참여하는 ‘청년공감(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감)’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찾아가는 정책 토론회 ‘청년공감’의 ’23년 상반기 활동 실적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정책담당자와의 소통, 공직에 대한 이해 등의 문항이 각각 4.69점, 4.61점을 기록했고, 청년공감을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는 문항도 4.64점으로 조사됐다.

수강생들은 강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 대부분 호의적이었으며, 추가로 지역인재 7급, 특정직 소개 등의 강의도 다수 요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청년공감’은 정책담당자가 대학 수업에 일일강사로 참여해 청년들에게 인사제도를 설명하고, 관련 정책 현안과 공직생활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청년 소통 사업이다.

지난해 수도권 일부 대학에서 시범 운영된 데 이어 올해는 전국대학으로 확대 시행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13회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올해는 지방 소재 대학에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해 13회 중 8회를 비서울권에서 진행했고 공직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강사진을 채용 부서 5급 사무관에서 인사처 모든 부서로 확대, 직급도 주무관에서 국장까지 다양화했다.

그 결과, 상반기 청년공감 수강생이 180명에서 총 600여 명으로 늘었으며, 강의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63점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 보다 활동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 지난해('22)와 비교한 올 상반기 활동 실적 >

<p>구 성</p>  <p>수도권 국한 5회 시행</p> <p>전국 확대(지방 중점) 13회 시행</p>	<p>수강생</p>  <p>약 180명 (행정학과)</p> <p>약 600명 (인문사회과학)</p>
<p>만족도</p>  <p>평균 4.54점 (최고 4.56점)</p> <p>평균 4.63점 (최고 4.82점)</p>	<p>참여 직원</p>  <p>인재채용국 사무관 등 10명</p> <p>인사처 모든 부서 국장~주무관 26명</p>

인사처는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의 공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로 행사를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수강생들은 “공무원 인사·채용을 담당하는 인사처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며 “정책 현안들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려는 모습에서 소통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인사처는 상반기 ‘청년공감’ 수강생 중 공무원 채용과 공직문화 혁신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인 대학생 19명을 ‘채용혁신 청년 홍보 대사(앰버서더)’로 위촉했다.

이들은 청년의 시각에서 현행 채용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진단하고,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특강·상담(멘토링) 및 현장 견학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책기획·홍보 등 공무원 직무 선행 체험, 현직자 소통과 현장 견학 등의 청년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공직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 혁신의 출발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라며 “인사처의 모든 정책이 국민의 뜻과 생각 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1) '23년 상반기 <청년공감> 활동 개요

※ (붙임2) <채용혁신 청년 홍보대사(앰버서더)> 활동 계획

담당 부서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은경 (044-201-8210)
		담당자	사무관	지은성 (044-201-8204)

